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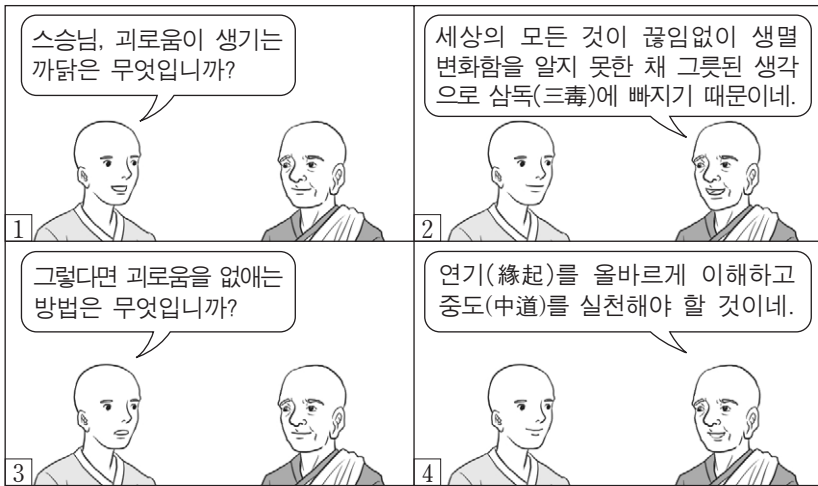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철학적, 예술적 논변을 즐기며 산다.
- ② 서로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고 하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산다.
- ③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인생의 윤회를 추구하며 산다.
- ④ 만물 간의 의존성을 자각하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산다.
- ⑤ 만물의 실체를 정립하기 위해 대자연의 섭리에 귀의하며 산다.

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각 가족의 가장들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시장에서 가족이 사용할 물품들을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이러한 마을들이 모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를 이룬다.

을: 각 계층의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조화롭게 맡은 바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한다. 이 국가의 통치자 계층은 지혜의 덕을 지닌 철학자들로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다스린다.

- ① 갑: 공동으로 노동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이 풍족한 사회이다.
- ② 갑: 경제적 풍요로 인해 사회 안에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다.
- ③ 을: 각 계층 간 자유로운 역할 교환으로 조화를 이룬 사회이다.
- ④ 을: 수호자 중에 선발된 지혜로운 소수가 통치하는 사회이다.
- ⑤ 갑, 을: 구성원 모두가 물질적 재화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이다.

[3~4]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 병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3.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갑은 도를 인간의 길흉(吉凶)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로 본다.
- ② 을은 도를 아무런 목적도 없는 무위(無爲)한 것이라고 본다.
- ③ 병은 도를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춘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본다.
- ④ 갑, 을은 도가 사라진 것이 시비(是非)의 분별 때문이라고 본다.
- ⑤ 을, 병은 도를 인의(仁義)의 삶을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본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임금이 훌륭한 임금이 된 까닭은 인의(仁義)와 법도(法度)를 바르게 실천했기 때문이다. 인의와 법도는 배워서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인위(人爲)의 결과이다. 본성과 인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 ①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본성을 확충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② 예법을 통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③ 본성을 따르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임을 부인하고 있다.
- ④ 본성을 따를 때 도덕적 사회가 구현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 ⑤ 본성은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부정하고 있다.

5.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행위가 덕스럽거나 사악한 까닭은 그것을 볼 때 쾌나 불쾌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악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모든 면에서 검토해 보라. 당신이 거기서 발견할 것은 행위가 악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로지 정념, 동기, 의지, 사고 들뿐이다.

- ① 정념은 이성이 설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②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에 있다.
- ③ 자연적 성향인 공감을 통해 자기중심적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
- ④ 도덕 행위의 추동력은 감정이고 도덕 판단의 근거는 이성이다.
- ⑤ 감정은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대한 이성적 통찰의 결과물이다.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다름의 입장에서 보면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 처럼 멀지만, 같음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 모두 하나이다. 성인(聖人)은 덕(德)에서 나오는 조화의 경지에서 자유롭게 소요(逍遙)한다.</p> <p>을: 모든 것은 시비(是非)의 정해짐이 없고, 선(善)이 있는 곳에 불선(不善)이 있고, 앎이 있는 곳에 알지 못함이 있다. 성인의 지혜도 아래에서 보면 지혜이지만, 위에서 보면 무명(無明)이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p>

- ① A: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가 있는가?
- ② B: 백성의 무지(無知)를 덕으로 교화하는 데 힘써야 하는가?
- ③ B: 수양을 통해 자신이 고집하는 앎[知]을 제거해야 하는가?
- ④ C: 참된 지혜는 인간의 말과 글[言說]로써 고정될 수 있는가?
- ⑤ C: 참된 자아를 깨달을 때 무명(無明)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7.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성현이 베푼 가르침은 인욕(人欲)을 제거하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방법 아닌 것이 없다. 인욕이 없고 순수한 천리인 마음은 정성스럽게 효도하는 마음이다.

○ 마음의 본체는 성(性)이고, 성은 곧 이(理)이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효도의 이치가 있고,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효도의 이치가 없다. 이치는 마음에서 구할 뿐이다.

— <보기> —

ㄱ. 앎[知]과 실천[行]을 병진하여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
 ㄴ. 참된 앎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그 앎을 완성해야 한다.
 ㄷ. 앎을 쌓아서 그릇된 기질(氣質)을 바로잡아야 한다.
 ㄹ. 사욕을 제거하여 참된 앎이 가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갑은 동양 사상가, 을, 병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성(性)은 마음[心]의 본체이고, 정(情)은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은 성과 정을 통섭하고 주관하니, 성과 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을: 하늘이 내린 성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인간은 스스로 주인 되는 권한[自主之權]을 지니고 있어, 덕을 행한 공로와 악을 범한 과오가 자신에게 있다.

병: 사람 마음에서 활발하게 드러나는 이치는 두루 통달하고 어둡지 않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은 고유한 덕이고 참된 앎[良知]이며, 인(仁)이다.

- ① 갑: 측은(惻隱)한 마음은 내재된 본성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 ② 을: 인간만이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 ③ 병: 마음 밖에 있는 이치는 의미 없는 죽은 이치[死理]이다.
- ④ 갑, 을: 마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 주재 능력을 지닌다.
- ⑤ 을, 병: 사덕은 하늘이 부여한 성선(性善)의 형이상학적 근거이다.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이다. 신적 본성의 양태도 필연적으로 신적 본성에서 생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한다. 신 또는 자연이 세계이며, 인간은 무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이다.

을: 신은 근원적 동일이거나 본래적인 단순 실체이다. 모나드들은 신의 산물로서 신적 본성에 의해 생겨난다. 그러나 그것들은 피조물의 본질에 따라 유한하다. 모나드들은 서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창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갑은 신 또는 자연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의 정신을 신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로 본다.
- ③ 을은 실체들의 조화가 신의 예정대로 실현된다고 본다.
- ④ 을은 궁극적 실체인 모나드들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연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10.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만약 국가가 시민 사회와 혼동된다면, 개인이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단지 임의적인 일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국가는 객관적 정신이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의 구성원이어야만 객관성과 진리, 그리고 인륜성을 지닐 수 있다.

— <보기> —

ㄱ. 개인의 최고 의무는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ㄴ. 국가는 절대 정신의 구현으로 부동의 목적 그 자체이다.
 ㄷ. 개인의 진정한 자유는 인륜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ㄹ. 국가는 가족과 시민 사회의 원리가 결합된 인륜 형태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근대 한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서학은 태극이 만물의 근본임을 모르고, 기(氣)에 해당하는 물질만을 숭상하며, 이익만을 생각하고 인간의 윤리를 끊는다. 양(洋)은 배척되어야 한다.

을: 대한의 유교는 백성을 중시하고 대동을 실현하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고, 지리멸렬한 공담만 논해 경제에 몽매하다. 양지(良知)의 확충을 통해 개혁하여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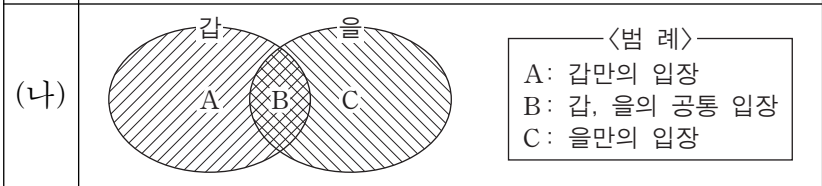
— <보기> —

ㄱ. 갑은 이(理)를 위주로 척사(斥邪)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대동 사회를 실현하여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유학의 도덕 정신을 배척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서구의 과학 기술을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행복은 고통이 없는 것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기에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을: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의무에서 행해질 때에만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 경향성으로부터 행해진 행복 추구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



— <보기> —

ㄱ. A: 행위가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해도 옳지 않을 수 있다.
 ㄴ. B: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칙이 있다.
 ㄷ. B: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도 반드시 옳은 행위는 아니다.
 ㄹ. C: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오로지 선의지 밖에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주제에 대한 보편적 결론에 도달하려면 공론장이 개방되어야 한다. 공론장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이해 가능성의 규범을 준수할 때 이상적 대화가 가능한 공동체의 토대가 마련된다.

을: 당사자들이 자신의 재능, 가치관, 심리적 경향 등을 알지 못하는 가상 상황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 보편적이고 정당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① 갑은 공론장 운영을 위해 특정 주제의 배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갑은 공론장을 정부가 관장하는 법적으로 제도화된 기구로 본다.
 ③ 을은 가상 상황을 상호 배려와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으로 본다.
 ④ 을은 가상 상황의 개인들이 계약에 합의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
 ⑤ 갑, 을은 합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존재이어야 한다고 본다.

14. 갑, 을은 한국 사상이자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이(理)와 기(氣)는 서로 의지하여, 이가 발하면 기가 따르고 기가 발하면 이가 탄다. 이의 본체의 무위(無爲)만을 보고, 그 작용이 드러남을 알지 못하여 이를 죽은 물건으로 간주하면 도리에 맞지 않는다.

을: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아 하나의 물건[一物]과 같다. 이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니, 이는 통(通)하고 기는 국한[局]된다. 이는 무위이고 기는 유위(有爲)이니 기가 발하면 이가 탄다.

— <보기> —

ㄱ. 슬픔·노여움 등의 칠정(七情)에도 선(善)이 존재하는가?
 ㄴ. 이와 기는 사단(四端)과 칠정의 각기 다른 연원인가?
 ㄷ. 측은·수오·사양·시비의 감정은 이의 작용으로 생기는가?
 ㄹ. 칠정은 기의 능동적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감정인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가), (나)는 사회사상이자이다. (가), (나)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회주의의 계획은 자본주의적 계획이나 모든 전체주의적 계획과 선명히 대조된다. 국가는 대규모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적 소유자도 생산과 복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독점의 심화로 자본가들은 감소하고,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와 저항은 확대된다. 사적 소유와 사회적 노동 간 모순의 격화로 수탈 체제는 종말을 고한다. 소수에 의한 민중의 수탈이 민중에 의한 소수자의 수탈로 전환된다.

- ① 국가와 계급이 소멸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는가?
 ② 다당제와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사회주의가 실현되는가?
 ③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와 소외를 조장하는가?
 ④ 이상 사회는 무산 계급의 폭력 혁명과 독재로 실현되는가?
 ⑤ 자본주의에서 이상 사회로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실현되는가?

1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덕을 알아야 한다. 정의나 용기 등은 지혜를 동반하느냐에 따라 해롭거나 유익하게 된다. 덕이란 유익한 것이므로 지혜의 일종이어야만 한다.
 을: 도덕적인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성에 반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반복된 실천을 통해 완성한다.

- ① 갑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본다.
- ② 을은 모든 덕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습관화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③ 을은 갑과 달리 의지의 나약이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덕의 실천을 위해 반드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무지로 인해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7.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심미적 단계의 인간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선택에서 결단을 통해 윤리적 단계로 도약한다. 이 단계에서도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절망하게 되어, 결단을 통해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적 단계로 도약한다.
 을: 인간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본질을 생각 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우며 고독하다.

- ① 갑은 감각적 향락을 버리는 주체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윤리적 단계에서 인간의 유한성이 온전히 극복된다고 본다.
- ③ 을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보편타당한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실존이 회복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합리적 사유로써 주관적 견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18.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개인이 세계 시민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누구든 지구상에서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누려야 한다. 또 출생 국가를 떠날 수 있는 권리, 원하는 국가에 최소한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자기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여러 민족 또는 인종이 각자의 권리를 갖고서 동등한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자기 민족의 권리가 세계 시민권보다 더욱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② 세계화 시대에 국경이나 민족의 구분은 무의미함을 강조한다
- ③ 개인이 국가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세계 시민임을 간과한다
- ④ 민족적 동포애가 보편적 인류애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민족 간 공존을 위해 자민족의 권리를 양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19.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개인이 이기심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고자 자유롭게 경쟁할 때 개인의 부는 물론 국가 전체의 부도 증가한다. 하지만 국가는 공적인 낭비로 가난해지기도 한다. 공공 수입이 비생산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을: 개인이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을 때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문제는 고용의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규모가 작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 ① 사익의 추구가 공익의 확대에 귀결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시장 경제 질서의 자기 교정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시장 경제에서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가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국가의 재분배 조치가 불황기의 효과적 대안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⑤ 국가 개입 확대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함을 간과하고 있다.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경쟁 때문에 약탈자가 되고 불신 때문에 침략자가 되며 명예욕 때문에 공격자가 된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 자연법인 이성인 인간에게 내면의 의무를 지을 뿐이므로 자연법의 준수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전쟁 상태에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연적 권리를 갖지만 그것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시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면, 갑은 ㉠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의해 자연 상태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고, ㉡ 사회 계약 이후에 국가만이 계약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을은 ㉢ 자연법 집행에 관한 개인 간의 분쟁을 중재할 공통 권력의 부재로 인해 자연 상태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고, ㉣ 개인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권력의 분립이 아닌 집중을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 사회 계약이 개인들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공통점을 갖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